

한은, 오는 25일 기준금리 0.25%p 인상 유력

전문가들 “경기 우려 등에 빅스텝 가능성 작아”

올해 물가 5%대 상향...성장률도 2%대 그칠듯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6% 넘게 치솟은 소비자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려운데다,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가 이미 우리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물가·환율 등에 불리한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수출 증가세 둔화 등과 함께 경

기 침체 우려도 커지면서, 한은이 무리하게 두 달 연속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으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p 더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에, 인상 외 다른 선택의 여

지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뛰었는데, 이는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더구나 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지난달 4.7%로 6월(3.9%)보다 0.8%p나 더 올라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물가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한은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를 좁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밖

에 없는 처지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여, 한은로서는 환율 방어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를 높여야 할 처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안한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금통위가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빅스텝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한은으로서도 0.5%p를 올리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최근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연준이 내년 중반께 통화 긴축 기조를 멈추거나 완화 쪽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런 부분이 한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역전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고, 우리가 지금 빅스텝을 다시 한번 밟는다고 역전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점에서 빅스텝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25일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은이 현재 4.5%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경우 2.7%에서 2%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합뉴스



투데이 경제

오비맥주,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오비맥주는 ‘카스’ 생산공장이 소재한 청주시에 인재육성 장학금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청주시청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두영 오비맥주 청주공장장, 최정욱 오비맥주 충청권역 본부장, 한정규 오비맥주 청주지점장, 이법석 청주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장학금은 저소득가정 대학생 15명에게 100만원씩 후원할 예정이다. /박은성기자

KT, ‘신안 씨원아일랜드’ AI 기반 구축

KT 전남전북광역본부부는 신안군 자은도에 새롭게 오픈한 ‘라마다프리카 & 씨원리조트 자은도’(이하 씨원아일랜드)에 ‘KT AI 리조트&호텔’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KT AI 리조트&호텔은 클라우드 기반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분야 국내 선도 기업 아놀자클라우드와의 협업을 통해 구축했다.

KT의 AI 음성인식 기술을 아놀자클라우드의 IoT(사물인터넷) 솔루션인 와이플렉스 GRMS(Guest Room Management System)와 연계해 객실 내 조명, 온도, 가전기기 등 투숙환경을 모바일과 음성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객실관리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씨원아일랜드’에서는 ‘KT 기가지니 호텔’ 단말 음성 인식만으로 객실 조명·TV·냉난방 조절 등 객실 제어와 어메니티 및 컨시어지 요청, 객실과 호텔간 내선통화 기능이 가능해 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투숙경험을 제공한다. /양시원기자

KG, 쌍용차 인수대금 납입 완료

회생계획안 인가만 남아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까지 납입을 완료하면서 인수 절차 종료까지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게 됐다.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등이 동의한다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오후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천319억원을 쌍용차 측에 납입했다.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투자 계약이 해제됐지만, KG컨소시엄은 완납하면서 예정대로 오는 26일 관계인 집회가 열리게 됐다.

KG컨소시엄은 애초 3천355억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했지만,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했다. 총 인수대금은 3천655억원으로 늘어났다.

300억원 증액으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출자 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개선됐다.

쌍용차는 변제를 변동 내용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소액주주 지분율은 25.35%에 불과해 관계인 집회에서 주주 동의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올여름 대형마트에서 복숭아가 수박을 제치고 최고 인기 과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와 수박 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복숭아, 수박 제치고 여름 대표 과일 등극

1인가구 증가 등 영향 매출 1위...“포도는 이제 연중 과일”

올여름 대형마트에서 복숭아가 수박을 제치고 최고 인기 과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와 수박 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전체 과일 매출 중 복숭아가 1위를 차지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모두 수박이 1위, 복숭아가 2위였지만 올여름 들어 복숭아 매출이 22.9% 늘어나는 동안 수박 매출은 8.7% 감소하면서 복숭아

의 순위가 올라갔다.

이마트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1-2인 가구가 늘면서 수박 소비가 줄어든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인 가구 수박 1통을 사서 소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수박보다는 양에 대한 부담이 적은 복숭아로 수요가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박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블랙망고수박이나 까망애플수박처럼 크기가 작은 수박 매출은 11.5% 늘었다.

가격도 인기 과일 순위가 바뀌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

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백도 복숭아(상품·4.5kg) 도매가격은 2만780원으로 1년 전 2만2천448원보다 7.4%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박(상품·1통) 도매가격은 1만9천452원에서 2만4천860원으로 27.8% 올랐다.

복숭아는 올해 생산량과 출하량이 모두 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과일 매출 3위에 오른 포도도 여전히 여름철 인기 과일이지만 겨울철까지 접할 수 있는 샤인머스켓이 포도 시장을 주도하면서 여름 제철 과일보다는 연중 과일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이마트는 전했다. /연합뉴스

삼성, 네오 QLED 98형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는 네오(Neo) QLED 98형 신제품을 22일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98형 신제품(QNB100)은 4K 해상도로, 기존 98형 대비 화질과 사운드가 대폭 개선됐다. 또 스크린의 두께를 줄이고 베젤(테두리)과 뒷면 모두 금속 재질로 제작하는 등 기존 제품과 다양한 차별점을 갖춘 초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제품은 ‘네오 퀀텀 매트릭스’ 기술로 빛의 밝기를 1만6천384단계(14비트)로 세밀하게 조정해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고 ‘퀀텀 HDR 5000’을 적용해 최대 5천니트(nit) 밝기에서 HDR 영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 1029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2 30 32 37 39 41 / 보너스 24		
1등	2,527,848,450	6개 숫자 일치
2등	67,952,916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611,738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농식품유통교육원 ‘푸드플랜 아카데미’ 개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푸드플랜 담당 신규보직자를 대상으로 9월2일까지 ‘푸드플랜 아카데미 제2기 신규보직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전문가 강의 및 토론, 완주 로컬푸드센터 등 현장 견학으로 구성해 진행된다. 강사진은 학계 및 소비자 유통 현장 전문가 등 분야별로 구성해 정책은 물론 현장 실무를 고루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양시원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고급선물용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 보증을 바로 이 맛!

- 한약재, 첨가물 NO!
- 홍삼성분 다량 함유 ▶ **쌉쌀한 맛**
-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 6년근 1등삼 25지 ▶ **풋내가 없음**
- 국산 홍삼만 사용 ▶ **느끼한 맛 없음**
-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 **깔끔한 맛**

동별 매장 모집 | 가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고려홍삼.shop

